

실천 가능 에너지절약 추진

도교육청, 추진계획 마련... 개인 난방기 사용 자제·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최근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 동절기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실천 가능한 에너지절약 추진을 통해 지구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천 가능한 에너지절약 지속 추진 ▲개인 난방기 사용 자제 ▲적정 실내온도 준수 ▲승용차 요일제 시행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과별로 타이머콘센트를 구입해 개인업무 PC 등에 대한 대기 전력을 최소화한 데 이어 올해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복사기·정수기 등에도 타이머콘센트를 설치해 대기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여기에 북도 1/2 및 점심시간 소등 저층(1~4)의 계단 생활화 등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한다.

또한 겨울 평균 18~20°C 이상 실내 온도를 준수하고, 야간·휴일 근무 시

필요한 부분만 난방기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지소비 절감 실현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 및 이행 실효를 분석·평가하고 각 부서별로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해 에너지절약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활동에 직원 여러분 모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 오천초등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모인 가운데 제2회 꼬마작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책으로 아이들의 진로 꿈꾸는 세상’

진안 오천초, 진로 프로젝트 일환 ‘꼬마작가 출판 기념회’ ‘꼬마작가 시인학교’ 등 운영... 전교생들 18종 책 출간

진안 오천초등학교(교장 한영구)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모인 가운데 ‘제2회 꼬마작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부터 진행한 책으로 꿈꾸는 세상 꼬마작가 진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자기만의 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이다.

올해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꼬마작가 시인학교’ (1~2학년), ‘꼬마작가 그림책학교’ (3~6학년)를 운영해

전교생이 18종의 책을 출간했다.

교육활동을 기획한 이서주 교사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경험과 자신감을 기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출판기념회 행사를 마련해 부모님과 친구들과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출판된 도서 중 ‘우리는 유기견입니다’ (송하선, 6학년)는 애완동물을 합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라는 작가의 생각이 담겨있다.

그 외에도 ‘백색도시’ (김영동, 6학

년), ‘목소리 사냥꾼’ (김서현, 6학년) 등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다수 출간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도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특히 오천초는 진안읍에 있는 공공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군청 카페 등 과 협조해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지역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영구 교장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꼬마작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문학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직무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3일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 사이언스홀에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99명을 대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관행은 어떻게 실패를 만드는가(한국인재경영교육원 김영모 분부장) ▲K-에듀파인 교육비특별회계 지출관리 시스템(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병훈 연구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회계집행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청렴의식 고취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에 대해 컨설팅과 직무연수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1일당 연수 인원을 99명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 스타트업, 동반성장 길 찾으려’ 전북대 창업지원단, 오늘부터 3일간 스타트업 패키지 WEEK ‘밋업 & 네트워킹 행사’·‘JB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등 운영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24~26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WEEK’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창업붐을 확산하고 혁신성을 갖춘 여러 분야의 스타트업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것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창업보육센터협의회 등 7개 기관과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0여 개의 스타트업이 3일 간 빛을 밝힌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창업붐에 대한 열기를 다시 확산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 창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스타트업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로컬 스타트업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24일 개막식 행사에서는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WEEK를 알리는

스타트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밋업 &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된다.

또 25일부터는 예비창업자의 아이템을 해외시장에서 검증하는 JB글로벌 챌린저와 초기창업기업 대상 글로벌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JB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전북대창업지원단), G-ROAD 관로개척 라이브커머스 마켓 초기창업패키지 해외시장개척단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창업한지 3~7년에 접어들어 도약기들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 성장할 수 있도록 테크 브릿지 비즈니스 매칭 밋업을 운영, 실질적인 연구성과가 사업아이템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호남권 스타트업 캠퍼스 2021 행사와 실험실 Pre-startup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대규 단장은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를 통해 창업지원 프로세스 공유와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도약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비정규직 처우개선 앞장 ‘노동교육감’ 될 것”

차상철 대표 “교육공동체 소중한 일원으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대표는 23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앞장서는 ‘노동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급식,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청소 등 업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도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존중하는 ‘노동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라북도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7



개 직종에 7,8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약 5,000여명의 방과후교사와 예술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약 2만4,000명임을 감안하면 상당 수가 비정규직 신분으로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차 대표는 실현 정책 방안으로 ▲

노동정책 총괄부서 신설 ▲학교인권교육원 확대 개편을 통해 노동인권교육 강화 ▲공무원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최소 80% 이상 되는 임금 체제 확립 ▲돌봄교실 기능 확대 및 질적 향상 등을 말했다.

차상철 대표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가족의 노동에 대해 생계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부합된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집단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교육 격차 줄이는 방안, 후보자에게 물어보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 후보정책 토론회 비대면 온라인 진행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지난 22일 선출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차상철 이항근 천호성 후보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전주교대 박승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공통질문, 상호질문, 현장질문 순으로 이뤄졌다. 토론 내용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 교육 격차 줄이는 방안, 지역사회 소통 문제의 개선 등 3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으로 상대 후보와의 교육적 견해를 비교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실시간

채팅방에 올라온 현장 질문으로는 디지털 산업 생태계 전환기의 교육, 대학 입학에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방안 등이 있었다.

한편 토론회에 참여한 세 후보들은 경선을 통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모두가 하나의 팀을 이뤄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 마을을 잇다’

담쟁이교육포럼, 전북교육협력기구 관련 정책토론회 황호진 전 부교육감 “시민 중심 교육거버넌스 필요”

담쟁이교육포럼은 지난 22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전북교육협력기구 설립을 위한 모색 : 학교, 마을을 잇다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임경환 전 순천폴리리교육지침센터장의 발제와 조정현 전주YMCA 사무총장 박효준 전주중등교육청 교사, 그리고 황호진 전 전라북도부교육감이 토론자로 함께 전북교육협력기구와 교육지침의 방향을 모색했다.

좌장을 맡은 하정호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의 이념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의 본질로 다가서자는 의미를 가진 중요한 정책토론회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북에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거버넌스를 이루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한 담쟁이교육포럼의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지금 우리 교육은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인구절벽 등에 맞닥뜨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시스템으로 근본



(사진 왼쪽부터) 조정현 전주YMCA사무총장, 황호진 전 전북도 부교육감, 하정호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거버넌스 소위 위원장, 임경환 전 순천폴리리교육지침센터장, 박효준 전주중등교육청 교사.

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할 대전환기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화를 고려한 교육자치의 확장과 교육주체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구성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전북교육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부교육감은 “현재 도내

교육협력기구는 광역단위에서는 도교육청의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가 운영중이나 총 40명의 교육거버넌스 위원 중 공개모집은 11명이 불과하고 나머지는 교육감 추천으로 이뤄져 있어, 소위 이른바 ‘거버넌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은성 기자

광산폐기물 내 금속류 미생물 침출 시 박테리아 흡착 영향 분석

전북대 사디아 일야스 박사·최소원 대학원생, 학회 논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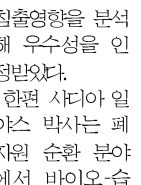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사디아 일야스 박사(지연·에너지 공학과)와 최소원 대학원생(환경에너지융합학과)이 최근 열린 2021년도 한국지원리사 이콜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한국지원리사이콜링학회의 전문학술지에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상이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폐자원의 하나인 광산폐기물 내에 존재하는 금속류의 미생물 침출 시 박테리아의 흡착 영향에 대한 연구로 박테리아와 매질 간의 접촉 및 비접촉 매커니즘에 의한



사디아 일야스



최소원

침출영향을 분석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사디아 일야스 박사는 폐자원 순환 분야에서 바이오-습식재련의 전문가로 2019년 한국연 구재단의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으로 초청, 활발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소원 대학원생은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박사과정생연구지원금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폐자원 순환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전문 프레젠테이션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주비전대학교(총장대행 문용규)는 23일 본교에서 교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한 블렌디드 방법으로 교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획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PPT활용 기법에 관련된 것으로, 전주비전대 교직원의 전문적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에 참여한 김영진 계장(학생실습혁신담당)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학 비전과 미션 달성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 대학경영 및 행정전문성이 한층 강화돼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을 기획한 최형주 행정처장은 “고등교육을 리드할 대학으로 급부상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 혁신이 절실하며, 이에 발맞춰 대학행정 및 경영 혁신도 중요하다”며 “이에 전주비전대 교직원들이 프레젠테이션 전문역량을 높여 대학 경영혁신을 이끄는 주역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